

醫學論文 쓰는 법

서울대학교 · 내과

—康 漸 榮—

◁ 目	次 ▷
머 리 말 論文的 本質	論文的 種類와 構成 論文的 構想

머 리 말

무릇 科學의 發達은 研究에 달려 있고, 그 研究業績은 論文으로 써서 發表하여야 비로소 萬人이 그 研究했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그 內容은 理解, 批判하든지, 또는 追試나 應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論文은 研究業績의 結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研究를 했더라도 그 "表現이 拙劣하든지 不適當해서 杜撰 或은 難澁한 論文을 만들어 내면, 그 研究의 內容이 適確하고 充分하게 紹介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科學論文 特히 醫學論文은 醫學이 實證科學이기 때문에 論文을 쓰는데 있어서 그 研究內容의 眞實性和 함께 表現의 正確성이 絶對로 要請되며, 이것은 그 論文의 價値를 左右

한다.

醫學論文 쓰기에 있어서, 또 한가지 重要的 點은 簡潔이란 點이다. 어려운 內容을 複雜하지 않게, 알기 쉽게, 그리고 冗長에 흐르지 않게 簡潔하게 간추리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읽히기 爲한 刊行物에 掲載하는 論文에 있어서는 더욱 重要的 條件인 것이다. 英國의 代表的 醫學學誌 "Lancet"은 이 좋은 본보기로서 正確, 簡潔, 이 두가지 條件에 맞지 않는 論文은 接受가 拒否되는 것이다.

둘이켜 우리나라의 現狀을 보면, 醫學論文의 原稿는 頭痛겨러라는 것이 現在 醫學刊行物 編輯者나 印刷所 등 關係者들의 定評이다. 老 年輩 사람의 原稿는 한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表記法에 誤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의 原稿에는 論文의 構成,

考案, 文獻記載方法 或은 順序等에 缺陷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岡, 表, 寫眞, 外國語 등이 많이 섞여 있어 組版에 時間이 많이 걸려서 印刷所에서 敬遠하는 醫學論文은 記載方法이나 順序까지 뒤범벅이 되면 참으로 다루기 힘든 原稿가 되어 버려, 關係者들의 頭痛값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좋은 論文을 남기기 爲하여 좀 더 올바르고 正確한 記載를 하여야 하겠다. 그럴려면 論文 쓰기 와 그 校正法에 對한 正確한 知識이 必要하다.

이러한 動機에서 이제부터 論文을 쓰고저 하는 사람들의 參考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本文을 草한다.

論文의 本質

論文은 研究의 記錄이며 科學的文獻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論文은 우리들의 知識에 對해서 무엇인가의 寄與를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안된다. 누구나 아는 事實을 어려운 文章으로 엮은 것이라든지 先人의 業績에서 剽竊하고 改作한 것 등은 眞實한 意味로서는 論文이라고 할수 없다.

要컨데 論文은 어딘가 새로운 點即 얼마만큼이라도 創意 創見(Originality)이 없어서는 안된다. 從來대로의 方法과 材料를 使用하고도 새로운 結論에 到達하는 경우도 絶無

하지는 않다. 例를 들자면 Mendel 이 從來多數의 學者들이 이미 使用해 온 豌豆콩을 材料로 하고, 이미 踏襲해 온 異品種間의 交種이라는 方法에 依해서, 前人未踏의 遺傳의 法則을 發見한 것과 같은 것은 그 좋은 實例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간 卓越하고 非凡한 頭腦가 아니고서는 企圖도 할수 없는 일이다. 가장 普遍的인 方途는 1) 材料는 흔한 것이더라도 研究의 方法이 새롭다던가. 2) 研究方法은 舊式이라도 研究材料가 只今까지의 것과 다르다던가. 3) 材料도 方法도 다 같이 새 것이라던가, 이 세 가지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이미 Cambell 教授도 強調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研究하던가 科學이라던가 하는 것을 너무 좋게 解釋해서는 안된다. 科學은 次코 物理, 化學, 生理, 天文, 地質, 醫學, 工學, 農學, 心理等の 諸學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例를 들자면 單純한 希臘語의 學徒는 科學者라고 할수 없을지 모르나, 그가 萬若 言語學的으로 希臘語의 構成이라던가 變遷을 研究한다던가, 或은 어떠한 原因으로 그것이 맥 없이 崩壞되었는가를 研究하였다고 하며는, 그 것은 radium 의 崩壞를 研究한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科學이라고 할수 있다. 自然科學과 並立해서 人文科學

은 嚴然히 그 存在를 認定받아야 한다. 科學者라는 것은 事實 그것에 對하여 妥當하고 또 公正한 態度를 갖고, 恒常 原因과 結果에 注意를 기울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W. G. Reeder 가 1930년에 이미 科學的記錄으로서의 論文이 具備하여야할 條件으로서 든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正確性(Accuracy)

正確性 或은 正確性이란 條件을 缺如한 研究는 世人을 어지럽게 한다는 點에서 容恕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論文은 없는 便이 낫다. 모든 統計上의 材料는 蒐集하고, 系統化하고 網織해서 그것을 極히 綿密한 注意를 가지고 發表하여야 한다. 不正確한 data 를 公表해서 同學者로부터 異議를 提出받는것 같은 不美스러운 일을 없애기 爲해서, 充分히 自信이 생길때까지 反復하고 또 反復해서 check 하는 習慣을 길러야 한다. 또 統計의 數字에만 注意를 集中하여, 人名이라던가 論題, 年次 등에 綴字의 誤謬가 없도록 단단히 注意하여야 한다. typing 이라든가 淸書를 他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特別히 誤記, 脫字誤算등이 생기기 쉽다. 이런 경우라도 最終 責任은 그것을 訂正하지 않고 看過한 著者위로 돌아오므로 더욱 留意하여야 한다.

2) 客觀性(Objectivity)

論文은 어디까지나 客觀的(Objective)이어야 하지, 主觀的(subjective)이어서는 아니 된다. 即 實地로 있었던 事實, 確認할 수 있는 證據의 뒷받침이 必要하며, 單純한 筆者의 意見만으로서는 안된다. 著者의 主觀으로 “나는 이러이러 하다고 確信한다”는 식의 表現은, 論文속에 되도록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著者의 意圖를 陳述하는 경우에는, 著者 自身の 蒐集 Data 이나 或은 다른 學者의 研究成績이나의 根據를 明示할 必要가 있다. 根據없는 說은 獨斷, 信仰 乃至 迷信으로서 學說은 아니다. 그러나 世上에는 事實의 뒷받침이 없는 他人의 說을 證據로서 自己의 說의 根據로 삼는 사람이 있다. 特別히 그 他人이 學界에서 有名한 人士이고, 더우기 그것이 一人이 아니고, 數人인 경우에는, 單순한 說을 證據로 誤認하기 쉬우나, 그것만으로는 決定的인 論據로 삼기에는 不足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結論을 그 메리트 받아 드릴 것이나, 少數의 有識者는 決코 그것에 眩惑되지 않는다. 少數의 有識者가 多數의 無識者에게 優越한 것은 勿論이다.

3) 不偏性(Impartiality)

論文의 著者는 決斷코 偏頗한 態度나 憎고 喜고의 感情과 같은 先入觀念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 그러

한 것들은 論文의 價値를 몹시 損傷하는 것이다. 既成의 學說에 拘碍됨이 없이 單只 眞理의 發見을 目標로 竊장 邁進하여야 한다. 說使 그것이 自己의 利害에 相反하는 結果가 되더라도, 或은 義理 人情上으로 참기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眞理의 앞에서는 勇敢하여야 한다.

4) 立證性(Verifiability)

論文은 讀者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再試 或은 追試할 수 있게 記述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故로 萬一에 普通으로 흔히 있는 것이 아닌 材料나 方法을 使用한 경우에는, 그 研究材料와 研究方法을 特히 分明하게 또한 仔細하게 說明해 두어야 한다. 또 印刷해서 公表할만큼 重要하지 않은 論文이라도, 이것을 어딘가 安全한 곳에 綴해서 保管해 두어서 必要할 때 손쉽게 閱覽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原則이다.

5) 平易性(Readability)

論文은 讀者를 前提로 하고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優秀한 論文이라고 할지라도 읽어서 理解가 안가는 것은 아무 所用도 없다. 따라서 科學論文은 可讀性이 높은것을 必須의 條件으로 한다. 學者가 어떤 眞理를 發見했다고 하면, 그것은 한가지 커다란 일을 完遂한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任務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發見 또는 創意創見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義務가 있다. 읽는 사람의 立場에 서서 果然 이것이 論文의 讀者에게 理解될수 있을가를 恒常 念頭에다 두고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論文은 恒常 그 論文이 掲載되는 雜誌의 讀者層을 念頭에 두면서 쓰는 것이 必要하다.

論文의 種類와 構成

科學論文 特히 醫學論文을 이것을 大別해서, 原著, 症例報告, 綜說, 抄錄의 네가지로 나눈다. 그러나 때때로 위와 같은 分類法으로는 區別할수가 없는 複雜한 論文이 있다. 即 原著와 綜說를 兼한 것, 症例報告와 綜說를 兼한 것, 또는 原著와 症例報告와 綜說의 三者를 兼한 論文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위의 分類의 種類를 二重으로 또는 三重의 性格을 同時에 갖추었을 따름이지 端的으로 위에 分類한 論文의 領域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以上の 論文의 種類를 좀더 仔細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論文의 種類

① 原著(Original Article)

著者の 研究結果를 綜合하여 어떤 獨創的인 結論을 얻은 것으로 어떤 研究目的을 充分히 科學的으로 立證할 수 있을만한 材料와 方法을, 自

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實地로 施行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原則적으로 研究室과 研究指導者가 必要하다, 勿論 때로는 地方病의 現地調査論文같은 研究室 아닌 現地를 研究舞臺로 삼고, 또 혼자 누구의 指導없이 自己스스로의 立案과 計劃으로 된 原著도 있다.

② 症例報告(Case Report)

症例報告를 實例를 事實대로 等界에 報告하는데 目的이 있으므로, 特定한 結論이 없어도 좋다. 다만 自己가 經驗한 것을 觀察한대로 正確히 忠實히 記載되면 足하다. 그러나 症例의 例를 들자면 臨床上의 여러가지 症狀이던가, 檢査結果, 治療結果 등을 되도록 詳細히 記錄하여야 한다.

③ 綜說(Review)

綜說은 別稱을 綜合抄錄 또는 總抄라고도 한다. 어떤 一定한 論題에 對해서 著者自身 또는 他人의 研究業績을 많이 涉漁讀破해서, 이것을 體系的으로 條理있게 綜合하고 整理해서 거기서 演繹한 要約(summary)를 讀者에게 提示하는 論文이다. 즉 어떤 一定한 分野에서의 現在까지의 研究의 情勢나 傾向을 一般讀者에게 紹介하는 論文이다.

④ 抄錄(Abstract)

이것은 他人 또는 自己의 1個의 原著를 壓縮(digest)한 것으로서, 잘

은 文章(보통 2百字 原稿紙 6枚 內外 程度)가운데, 原著의 가장 重要한 部分, 即 骨子を 빠질 없이 要領 좋게 紹介하여야 한다. 抄錄의 原素材가 原著이므로 그 研究目的, 研究材料와 方法, 研究成績과 結論을 限定된 紙面안에 壓縮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重要한 要件이다. 이것은 原著를 充分히 咀嚼하고 消化하므로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綜說은 自他著의 여러篇의 原著, 或은 原著와 綜說을 綜合하는 것이며 紙面에 制限이 없다. 거기에 比해 抄錄은 素材가 自他著의 原著 1篇에 限하여, 이것을 壓縮해서 制限된 짧은 紙面에 記錄하여야 한다는 點, 이것이 綜說과 抄錄과의 두드러진 差異인 것이다.

2) 論文의 構成

種類別로 본 醫學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1. 原著

① 序言(序語, 序說, 序文 또는 머릿말) Preface

② 目次(또는 次例, 內容) Table of Contents

③ 緒論(또는 緒言, 緒語) Introduction

④ 本文 (Body)

가. 研究材料 或은 研究對象(또는 實驗材料 或은 實驗對象) Material
나. 研究方法(또는 實驗方法) Me-

thod

다. 研究結果 或은 研究成績(또는 實驗結果 或은 實驗成績) Results

라. 總括 및 考案(또는 考察) Discussion

마. 結論(또는 結語, 結言, 要約, 맺는 말) Conclusion, Summary

바. 致辭 Acknowledgement

사. 文獻(또는 參考文獻) References, Bibliography, Literature

아. 附圖(및 그 說明) Plate

자. 外文抄錄(주로 英文, 또는 獨文이나 佛文) Abstract

[註: ①, ②는 몇 篇이나 되는 原著에서는 必要할 때도 있으나, 普通은 省略하는 것이 常例이다]

2. 究例報告

究例報告는 그 內容이 區區하나, 가장 普遍的이고 代表的인 例를 격는다.

① 序言 또는 緒論

② 症例

가. 症例番號, 患者名 및 性別,

年齡

나. 現病歷

다. 既往歷

라. 家族歷

마. 入院時所見 및 其他所見

바. 檢査成績

사. 治療 또는 經過 및 轉歸

③ 總括 및 考案

④ 要約 또는 結論

⑤ 文獻

⑥ 附圖

3. 綜說

綜說은 一律的인 規定을 定할 수 없을만큼 廣範한 論文이다. 어떤 경우는 어떤 領域의 知見을 綜合的인 立場에서 紹介하는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確定的인 個人의 所信에 基礎를 두고 他人의 研究를 批判的으로 紹介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綜說은 醫學領域의 評論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綜說의 代表的인 경우를, 가장 共通的인 構成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① 序言(머릿말 등)

② 本論

③ 總括 및 結論(또는 맺는 말)

論文的 構想

科學論文을 쓰는데 있어서 어떠한 姿勢로 어떠한 方針아래 쓸 것이냐 하는 問題부터 檢討해야 한다. 이것이 論文的 構想이다.

1) 問題의 選定(Selecting the Problem)

卒業論文이라던가 碩·博士論文의 경우에는 指導教授가 論文「테에마」(theme, Thema)를 定해주는 것이 普通이나, 研究者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自己 스스로 問題를 選定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論文을 쓸 적에 우선 맨먼저 부딪치는 것이 이

問題選定이다. 問題選定の 重要性은 사냥꾼이 사냥터를 고르고, 漁夫가 漁場을 定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萬若에 그 選定을 잘못했다가는 勞多功少 即 苦生만 실컷 하고 効果는 적던가, 자칫 잘 못하면, 全然 無收獲으로 끝날 危險性조차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指導教授에게 相談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저 漫然히 「테에마」를 주시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自己로서 2個고 3個고 問題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여러 角度로 檢討한 다음, 指導教授의 指示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研究室에서나 講義室에서나 或은 病室이나 街頭에서 무슨 좋은 「테에마」가 생각나면 곧 「메모」해 두는 것이, 學習者에게도 指導者에게도 大端히 도움이 된다. 한번 머리에 떠올랐던 좋은 「테에마」를 적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잊어버려서 암만 해도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럼 論文의 「테에마」의 選定에 있어서 考慮하여야 될 要點은 무엇인가?

1. 可能性(Possibility, practicality)

아무리 좋은 「테에마」라 할지라도 自己의 力量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 自己가 所屬해 있는 機關이나 學校에 研究施設과 研究豫算, 補助者 乃至 協力者가 없고, 또 研究者 自身

에도 그것을 負擔할 經費가 없어 實行不可能한 것은 아예 斷念할수 밖에 없다. 萬若에 現在 있는 대로의 施設도 可能할것 같고 規模를 縮少하고 經費를 주려서 할 수 있는 「테에마」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가지 方法이다. 그러나 昇進銜衡에 提出하는 論文, 또는 碩·博士論文처럼 期日이 限定된 論文에 있어서는, 研究에 所要되는 時間도 미리 算定해야 한다. 科學論文엔 論文 쓰기의 前提가 되는 研究가 얼마나 걸리나 하는 時間의 長短도 重要な 要素가 된다. 끝으로 가장 重要な 것은 論文을 쓰고 저하는 사람의 研究能力의 問題이다. 數學이 鬼門인 사람이 統計學에 關한 「테에마」를 다룬다면, 顯微鏡技術이 서무른 者가 細胞學의 테마를 取扱하는 것은, 適切하지 못한 例라 하겠다.

그러니까 問題의 選定은 各自가 여러모로 檢討해서 自己에게 可能性, 實現性이 있는 「테에마」를 選定하는 것이 捷徑인 것이다.

2. 發展性(Developmentality)

위에 적은 可能性의 問題는 善通 커다란 問題를 다룰 경우에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條件이지만, 發展性의 問題는 反對로 작은 「테에마」를 다룰 경우에 考慮를 要하는 問題이다 「테에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經費도 努力도 時間도 적게 들며,

빨리 整理하고 速히 論文을 만들수 있다. 卽 可能性이란 點에 있어서는 滿點이다. 그러나 그 問題가 解決되면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意義가 적다. 設令 當面한 問題는 작드라도 漸漸 發展해갈 展望이 있는 問題를 擇하여야 한다. 假令 같은 500g의 「바시락」을 사는 경우에, 조개가 크고 數가 적은 것과, 크기가 작고 數가 많은 것과 中間치 쯤의 것과의 3種類로 나누어서, 어느 쪽이 消費者에게 가장 利益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은 鷄卵을 1kg 쯤 사는 경우에 크기로 大卵과 中卵과 小卵과에 依해서, 알맹이(卵黃+卵白)와 全重量과의 比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問題이다. 이것들은 부역經濟로 보아서 實地로 알아들 必要가 있고 그리고도 調査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다. 極히 有益한 調査이기는 하나, 아까움게도 發展性이 없다. 「바시락」조개 쪽은 季節에 依한 變動을 調査한다던가, 鷄卵 같은 品種에 依한 變異를 調査한다던가 하는 問題가 생각되지만, 그 以上은 막다른 골목으로 끝날 것 같다.

3. 新鮮味(Novelty)

아무리 좋은 「테에마」일지라도, 이미 先學者나 누군가가 해버린 問題라면 하는 수가 없다. 現在 이미, 누군가가 着手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아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나, 그러나, 될수있는데로 그러한일도 調査해보는 것이 좋다. 學徒에게는 研究의 時間은 貴重하다 徒然히 다른 사람의 後塵을 窺하는 것과 같은 쓸데 없는 努力은 可能한 限 避해야 할것이다 단지 先人の 研究에 疑點이 存在하는 경우라던가, 그 當時에는 없던 새로운 破究方法이 發見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別問題이다. 設使 同一한 結論에 到達한다고 하여도 한번 再試 또는 追試를 해보는 것도 無意味한 일은 아니다.

4. 應用性(Applicability)

以上 세가지 點이 具備되었으면, 그다음에는 應用的價値가 높은 「테에마」를 選擇하여 한다. 學會같은 곳의 研究發表를 들어보면, 純正科學으로서도 거이 價値가 없고, 應用上으로도 全然 關係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래서는 經費와 學力과 時間과를 消費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疑心이 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應用性이라는 것은 學問上的 應用도 包含해서의 意味로서, 만드시 人間の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應用에만 局限하는 것은 아니다.

5. 興味性(Interest)

아무리 위에 적은 여러가지 條件이 完備되어 있다고해도, 研究者 自身에게 興味가 없는 「테에마」라면

困難하다. 그러나 實際로는 이 問題는 그리 근심할 必要가 없다. 問題 選定만 適切하면 처음에 興味가 없던 問題라도 研究해가는 동안에 興미를 느끼게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느 學者가 喝破했듯이 “興味가 없는 問題는 없다. 그러나 興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있다.” 科學的 研究에 興미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란 研究를 斷念하는 수 밖에 없다.

2) 研究計劃(Planning of Investigation)

研究할 問題 위에 적은것 같은 慎重한 考慮 밑에 決定이 되면, 다음에는 어떠한 方法으로 研究하는가를 생각해서 될수 있는대르 詳細히 計劃을 세운다. 勿論 研究의 進行에 同伴하여 豫期치 안는 事情이 생기고 計劃을 變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事故에 直面하드래도 最初의 計劃이 緻密하며는, 곧 障容을 바꾸고서 新事態에 即應할 수가 있을 것이다. 研究나 實驗設計가 粗漏하며는 無意味한 實驗이나 觀察을 反復한다든가, 重要的 data가 빠져 있던가 하여 자 이제부터 調文을 써야겠다는 段階에 이르러서, 몹시 狼狽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것도 時日에 餘裕가 있으면 不足한 것을 補充할 수도 있으나 餘裕가 없는 경우에는 本意아니지만 不備한 論文을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 版局에 빠진다 臨機應變이라는 것은 研究上에 있어서도 매우 必要하지만, 그것은 決코 無計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用意周到한 研究計劃은 時間과 勞力과 經費의 浪費를 救하는 同時에, 缺陷을 없애고 우리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는 論文을 만들게 하는 가장 좋은 方法이 된다.

3) 材料의 蒐集(Collecting Data)

研究計劃이 決定되면 다음에는 材料蒐集에 着手한다. 建築을 하는 경우에 設計圖가 完成되면, 거기에 따라서 必要한 建築材料를 蒐集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테에마」의 性質에 따라서 或은 實驗或은 觀察或은 調查 이렇게 方法은 여러가지 있으나, 如何間에 材料는 豊富하지 않으면 안된다. 建築에 着手한 다음에 저것이 不足하다. 이것이 없다 하게 되던 일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貧弱한 data를 土鷄로 커다란 論文을 만들어는 것은 所謂 砂上의 樓閣으로서 不安定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材料는 一見 아무리 豊富하드래도 凝固性을 喪失한 목은 「세멘트」라던가 腐敗한 木材라던 困難하다. 即 材料의 選擇은 부디 精誠껏 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簡單한 論文에서 必要없으나, 複雜한 「테에마」에서는 研究의 進行中에 때때로 材料를 組立해서 所謂 作業假說(Working hypothe-

sis)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지 않고 最初는 材料蒐集에만 專念하고, 그리고서 論文 쓰기에 着手해 보면 不必要한 材料가 過剩하다던가 必要한 材料가 不足하다던가 해서, 커다란 徒勞를 한다던가 또는

論文作成上의 支障을 가져오게 된다. 마치 새로운 艇의 艦船이나 航空機를 製作하기 前에 旗幟를 만들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操心인 것이다. 作業假設組立의 手癖은 決코 無益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카톨릭의대 간호학교 간호학과로 승진

3년제 간호학교가 1963년 12월 16일 문교부 승인하에 간호학과로 변경되었고 4년제로 되었다. 교장으로 계시는 박희봉 선생님이 임시적으로 과장일을 맡아보시고 아직 간호학과로 변경되서의 특별한 계획은 없다한다. 금년 졸업생들은 자동적으로 4학년에 편입된다고 한다. 다른 간호학과 (연세대, 서울대, 이화대)에서 수여하는 B.S.(간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국립의료원 간호과장으로 계시는 유순한선생은 우리나라 내포모서 아동복지사업 세미나에 참석차 방콕으로 향할 2월 20일 퇴돌 보내시고 무사히 귀국하시다.

◎연세대 간호학과에서 핀 수여식이 거행되다

2월 19일 간호학과 기숙사에선 Pinning Ceremony 가 선배들과 학부원 축하하에 성대히 배풀어졌다. 핀은 학교 이름과 졸업생의 이름 학과를 명시하였고 간호원으로서의 상징을 뜻한다. 우리나라 간호계에선 처음으로 실시되는 식이므로 의의가 있었고 핀을 수여받는 졸업생들의 모습은 기록했다.

◎영등포 시립병원에 불

2월 20일 시립병원에서 불이 일어나 건물은 소각되었으나 인명의 피해는 없었다. 원인은 누전이었다고 한다. 환자는 중부 시립병원에 수용중이고 다시 병원이 신축될때까지 외래환자만을 취급할 것이다.

◎문진 제3육군병원에 근무하던 고순계(28세)씨는 64년 1월 14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다.

◎홍옥순씨 편저본 본회에서는 기로 간호학을 출판하다.